

조선의 梁啓超 수용과 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

최형욱

〈목 차〉

1. 서론
2. 梁啓超의 생취 및 시대인식
3. 조선의 梁啓超 수용
4. 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
5. 결론

국문초록

중국 근대시기 維新派 啓蒙主義 지식인의 대표인 梁啓超는 중국의 정치·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의 개혁운동에 중대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소개된 이후 개화기 애국계몽주의 지식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梁啓超 또한 조선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졌고 또 당시 조선이 멸망해가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이를 통해 중국을 위한 교훈을 추구함으로써 일방의 수용에 그치지 않고 상호 작용하는 교류관계를 형성했다.

梁啓超는 1897년 초 처음으로 조선 언론에 소개되었고 이후 많은 저작들이 속속 전래되며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제국주의 열강의 유린에 직면한 동병상련의 현실 속에서, 그가 서구문명의 수용을 제창하고 애국계몽사상을 고취한 많은 문장들에 대해 조선 지식인들도 크게 공감했다. 그들은 梁啓超를 망국의 위기가

고조된 을사보호조약 이후부터 한일합방 직전까지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소개했고 그로부터 사회진화론이나 민족주의·계몽주의 사상 등을 수용했다. 또한 梁啓超가 서구 근대 史學의 이론을 기반으로 정립한 新史學은 조선의 근대적 역사학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고, 계몽주의·공리주의적 문학사상 역시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조선 문학계에 개혁 요구의 변화를 발생시켰다.

중국 근대의 민족적·국가적 위기 속에서 생성의 길을 개척해 나간 梁啓超의 성취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조선의 진보적 지식인들에게도 일종의 모범이 되었다. 때문에 조선 지식인들에게 비친 梁啓超의 모습은 주로 탁월한 식견을 지닌 선각자였으며, 또한 문장 중에 보이는 조선 멸망에 대한 동정과 애통합의 표현 등으로 인해 친근하고 우호적인 외국 인사였다.

한편 梁啓超에게 있어서 조선은 서구와의 대비 속에서 중국을 비취볼 수 있는 특별한 타자였다. 중화제국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장래에 중국도 조선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조선에 대한 동정·관심·우려와 서운함을 복합적으로 나타냈다. 1904년부터 1911년에 집중된 관련 저작들에 보이는 조선에 대한 인식은 크게 조선의 멸망에 대한 동정, 중화사상 및 제국주의적 입장에서의 속국 이탈로 인한 상실감과 서운함, 경쟁자인 일본의 강권에 대한 견책, 망국의 근원으로 본 조선의 지배층 성향 및 국민성에 대한 비판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계몽을 위한 교훈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결국 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서구의 민족제국주의를 단순히 수용하고 조선이라는 타자를 거울삼으려는 의식 하에 진행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때문에 동정에서 벗어나 비난과 비판을 넘어 조소에까지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민족존망의 위기 속에서도 개인주의적이고 대외의존적인 안일과 무지·무능에 머물며 세계사의 조류에 대응하지 못했던 조선의 상황은 여전히 패권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의 국제질서 속에서 냉철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梁啓超 수용, 조선에 대한 인식, 계몽주의, 민족주의, 망국사학

1. 서론

韓中修交도 벌써 17년이 되었다. 붓물 터진 듯 그간 양국 간의 교류는 의심할 바 없이 다른 어느 나라와의 교류보다 훨씬 활발하고 중요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수교 이전 양국 간의 문화교류는 상당히 오랜 침체기를 겪었다. 약 100년 전 먼저 근대화한 서구 및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각각 식민지·半식민지 상태로 피동적인 근대화를 시작하며 역시 피동적으로 서로간의 오랜 문화적 교류를 중단해야만 했다.

유구한 한중 문화교류사의 최대 침체기였다. 다만 그 침체기 바로 직전에 어느 시기보다 활발한 문화적 교류가 있어 오늘날과 같은 왕성한 교류를 위한 전통의 불씨를 남겼다. 고대에서 현대로 향해 가는 과도기에 중국 維新派 啓蒙主義 지식인의 대표적 인물인 梁啓超(1873-1929)가 조선의 정치·문화·사상 및 문학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말한다.

梁啓超는 중국 근대¹⁾를 대표하는 걸출한 사상가이자 정치가·문인·언론인이었다. 그의 방대한 저술과 강연은 중국의 정치·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 개혁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소개된 이후 개화기 애국계몽주의 지식인들에게도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梁啓超 또한 당시 조선의 상황에 대한 상당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며 이를 통해 중국을 위한 일종의 교훈을 추구함으로써 일방의 수용에 그치지 않고 어느 정도 상호 작용하는 교류관계를 형성했다.

위와 같은 한중 양국 古近代史의 대미를 장식한 중대한 교류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된 필자는 그간 주로 梁啓超의 문학에 대해 탐구해왔다. 사실 그를 비롯한 유신파 또는 개량파는 결국 정치적으로는 뿌리 깊은 중국의 보수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문학을 비롯한 계몽 활동은 본래

1) 중국의 근대를 언제부터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야마다 또 연구자마다 그 특징 및 변화에 대한 인식이 다름에 따라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그 상한시점을 아편전쟁으로, 하한시절을 오사운동으로 보는 시기구분법을 따랐다.

정치운동에 부응하여 전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중국 근대문화의 발전방향을 결정짓고 나아가 五四新文化運動의 선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梁啓超의 계몽사상과 학술·문학계의 혁신노력이 같은 시기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상호간의 적극적인 인식과 수용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본고는 바로 그러한 영향이 가능할 수 있게 한 梁啓超의 성취와 시대인식을 간략히 정리하고, 당시 조선의 梁啓超에 대한 수용이 어떠한 정도였는지를 짚어본 후 반대로 당시 梁啓超는 조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梁啓超를 비롯한 근대 중국과 조선의 관련양상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현대 전환기 한국과 중국 지식인들의 상호인식을 가늠해보고, 나아가 오늘의 밑거름이 된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2. 梁啓超의 성취 및 시대인식

19세기에 들어서며 내적으로 극심한 체제이완과 외적으로 서구로부터의 충격이라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중국의 지식인들은 적극적으로 생존과 구국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19세기 말엽 晚淸시기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국가 존망의 위기로 치닫는 격심한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치·사상적 대응논리를 정립시켰고, 그에 부응하여 문화 전반에서도 새로운 기풍을 일으켰다.

1880-90년대 가장 중요한 진보 정치세력이자 지식인 집단은 바로 康有爲·梁啓超 師弟를 비롯한 유신파 계몽주의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은 갈수록 심각한 위기 속에서 守舊派의 낙후성과 洋務派·中體西用의 한계를 인

식하고, 社會變革·經世致用的 경향에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혁해야만 함을 강조하고, 특히 청일전쟁의 실패를 계기로 그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며 일종의 개량주의적·계몽주의적 사회사조를 형성시켰다.

梁啓超가 이끈 이들 유신파 지식인들은 학술사상적으로 經世의이고 미래지향적인 今文公羊學 기반 위에 사회진화론·민족주의·계몽주의를 비롯한 서구 근대 부르주아 계층의 사상을 적극 수용하여 그 개혁운동의 중요한 근원으로 삼고 봉건왕조의 법제와 사회를 개량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서구 제국을 모델로 삼아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부강한 민족국가를 건립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梁啓超 등이 추진한 개혁은 입헌군주제를 비롯하여 기본적으로 봉건통치에 의지하여 위로부터 아래로 시행한 것이었으며, 때문에 민중으로부터의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수구파에 의해 정치적으로 좌절했다. 결국 戊戌政變으로 변법유신이 좌절되고 梁啓超는 일본으로 망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후 梁啓超는 오히려 정치적 실패를 교훈삼아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위해 학술·사상 및 문화 전반에 걸쳐 계몽운동을 전개하여 當代에 이미 커다란 호응을 얻은 것은 물론이고 현대에까지 계속 깊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 근현대사의 대세를 이끌어간 戊戌變法運動(1898) 및 辛亥革命(1911)·五四運動(1919) 등 굵직한 사건들에 있어서 梁啓超가 수행한 직간접적인 역할과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었다. 그가 전면에 나섰던 무술변법운동은 물론이고, 나머지 두 개혁운동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된 것은 정치·사회·문화계의 계몽사조였으며, 그 기본방향을 세운 인물이 바로 梁啓超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梁啓超의 초인적인 역량은 文史哲을 중심으로 한 학술연구에 기반을 두었다. 그의 학문 활동은 문학·역사·철학·정치학·경제학·사회학·교육학 등등 수많은 분야를 망라하였고,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방대한 저술로 남겨 오늘날 『飲冰室專集』·『飲冰室文集』으로 묶여져 전한다.

일반적으로 梁啓超의 생애는 크게 修學 시기(1873-1894), 유신운동 및 계몽활동 시기(1895-1903), 입헌추진 및 정치재개 시기(1904-1917) 그리고 講學 및 저술 시기(1918-1929) 등 네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 梁啓超가 계몽주의 사상가로서 중국 및 조선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 시기는 두 번째 시기와 세 번째 시기의 전반부였다. 이 시기에 梁啓超는 康有爲와 함께 정치적·사상적으로 당시 진보주의의 주류였던 무술유신(1898)을 주도했고, 그 전후로 정치일선에 있었거나 일본에 망명해 있었거나 간에 『時務報』(1896)·『清議報』(1898)·『新民叢報』(1902) 등 언론과 強學會·大同學校 등 학회·학교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국을 계몽시키고자 했다.

梁啓超는 특히 사상내용상으로 한계에 다다른 考證學에 대한 학문적 반성과 더불어 19세기 초부터 본격화한 서구열강의 중국 침략도 큰 자극이 되어 부각되기 시작한 今文公羊學을 학문적 배경으로 삼았다. 공양학에 내재된 ‘大一統’·‘三世說’·‘九世復讐說’ 등 經世的이고 진화론적인 개념들을 통해 전통 유학에서 이상적인 시대를 과거에 두던 것과 달리 미래에 진보의 목표를 두고 중국의 변법을 역사적 필연으로 규정했고 나아가 변법의 모델을 서구에서 구하고자 했으며, 특히 망명기간 중 많은 日譯 서구학술 서적들을 통해 그 학술적 배경을 깊고 폭넓고 했다.

이 시기 梁啓超의 사상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개혁사상으로 입헌군주제가 전제되었기는 하지만 清朝의 회복이나 재건이 아닌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같은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둘째는 민족주의·애국사상으로, 이를 통해 제국주의의 중국에 대한 침략을 인식하고 이를 억제할 것을 주장했다. 셋째는 ‘新民思想’ 즉 계몽·교육사상으로, 학교를 일으켜 인재를 양성하고 여성교육과 아동교육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근대화를 위해 국민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동시에 梁啓超는 서구의 근대적 史學 이론을 소개하고 중국의 新史學을 정립하는 이른바 ‘史界革命’을 주도했으며, 문학회혁명운동을 통해 계몽주의 성향의 근대문학의 발전방향을 결정짓고 나아가 오사신문학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 문학혁명운동은 변법유신운동 및 일본 망명시기(1895-1912)에 詩界革命·文界革命·小說界革命 및 戲劇改良의 구호를 내걸고 문학개혁을 주창하여 폭넓은 지지를 받은 상황을 말한다. 발전한계에 이른 전통문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나아가 근대화의 시대적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신문학 건설을 추구한 것으로서, 내용상으로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정치·사회·사상적 요구를 표현할 수 있었고, 언어·형식상으로도 비교적 참신하고 통속적인 진보경향을 채택함에 따라 정치적 선전·계몽의 효과를 거두고자 한 것이었다.

한편 위와 같은 梁啓超가 조선을 바라보기에 앞서 당시 시대를 인식하고 서구문화를 수용하는 등 세계를 인식한 태도에 대해 살펴보자면 그것은 오늘날의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 틀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었다.

이른바 문화적 패권주의에 입각한 中華思想·華夷論·天下觀이라는 교만함 속에 안주해있던 중국은 아편전쟁에서 치절한 패배를 겪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게 되었다. 민족과 국가의 개념도 채 정립하기 전에, 그동안 비문화권으로 인식하던 서구 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사에 그저 민족국가의 일원으로서 끼어들어 가야만 했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들이 천하라고 부르던 세계질서 속에는 華夷라는 조화구도를 이룰 수는 있을지언정 中華 즉 그 중심과 본질적으로 대립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他者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세기 이래 조화구도 속에 포괄될 수 없는 타자와 맞닥뜨리면서 그 조화와 질서에 근본적인 균열을 초래하고, 이로부터 중국이 서구에 대해 인식하고 수용하는 방식이 몇 가지의 형태 내지 단계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中體西用과 洋務派의 방식,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학술사상의 적극적 수용을 주장하는 유신파의 방식, 보다 강한 반전통의 입장에서 국민성 개조 등 근본적인 혁신을 지향하는 오사시기의 신문화추구 지식인의 방식 등이 있었다.

영향력 면에서 보자면, 그 중에서도 梁啓超 등 유신파의 서구 인식과 수용 양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梁啓超 등은 양무파의

한계 즉 유가사상으로 대표되는 정신문화는 중국의 것을 유지하고 서양의 과학기술만을 수용하여 개량을 시도했다가 일본의 메이지유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패한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근대 서구의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학술사상과 문화까지 들여와 중국 사회를 보다 근본적으로 변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겼다. 다만 입헌군주제를 고수한 것뿐만 아니라 비판적이거나 전통의 계승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므로 중체서용론과 全般西化論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인식과 수용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梁啓超는 서구라고 하는 대상을 중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타자로서 인식하고, 그 타자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중국을 변혁시키고자 했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 서구를 타자로 인식하고, 다시 그 타자의 이미지를 통해 중국을 재인식했다. 즉 정치적인 목적의식이 내면화된 진보사관 속에서 서구를 ‘보편적인 세계’로 두고 중국을 ‘특수한 것’으로 배제시키는 오리엔탈리즘적 사유방식을 능동적으로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梁啓超가 오리엔탈리즘 이론을 정립한 사이드보다 훨씬 이전 인물이지만, 내우외환의 현실상황을 개혁하기 위한 순수한 열정에서든 또는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하려는 당파적·정략적 기획 하에서든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적극 활용한 셈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또한 서구 및 일본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고 하기 보다는 중국의 근대화라는 수요에 부합하는 특정한 이미지를 찾고 이를 서구의 형상으로 재창조해냈다. 이는 옥시덴탈리즘 즉 동양이 자신의 특수한 이데올로기적인 요구에 의해 서구를 상상적으로 표상하는 행위의 범주에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梁啓超의 시대인식과 서구 수용의 태도에는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이 교차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근대화된 서구 및 일본의 정반대 형상으로서 조선을 예로 들며 중국을 위한 반면교사로서 바라본 경향이 매우 짙어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병상련의 동정과는 거리가 멀다.

3. 조선의 梁啓超 수용

위와 같이 불멸의 성취를 이룬 근대 중국의 기수 梁啓超가 조선 언론에 처음 소개된 것은 1897년 초로 전한다.²⁾ 이후 그의 政論이나 문학작품들이 속속 들어오며 개화파를 비롯한 한말 지식인들에게도 여러 측면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제국주의 열강의 유린에 직면한 동병상련의 현실 가운데서, 그가 서구문명의 수용을 제창하고 애국계몽사상을 고취한 많은 문장들에 대해 한문에 능통했던 조선 지식인들도 크게 공감했다. 당시 이미 근대적 언론매체와 우편왕래의 발달로 인해 梁啓超가 일본 망명 이후 간행한 『淸議報』와 『新民叢報』의 경우 조선에도 보급소가 설치되어 직접 볼 수 있었고,³⁾ 조선의 언론매체들을 통해서는 그의 문장들이 번역되거나 발췌 또는 내용 설명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소개되었다.

또 신문뿐만 아니라 『飲冰室文集』 등 단행본 형태로 된 梁啓超의 저서들도 조선에 들어왔다. 이를 통해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 계몽주의 유신파의 영수인 梁啓超 사상의 영향을 받음은 물론 간접적으로 서구 학술사상을 접했다. 더불어 당시 梁啓超의 사상에 동감한 조선의 많은 개화파 지식인들은 梁啓超를 찬양하고 그의 학술서나 문학작품들을 속속 번역·출판했다.

당시 梁啓超를 소개하고 찬양한 기사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며, 그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엿보이는 기사나 문장도 수없이 많았다. 이 부류는 생략하고 그의 저작을 언론매체에 실거나 단행본으로 번역 출간한 경우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언론매체에 실린 논저로는 「教育政策私議」(1906.10, 『大韓自強會報』, 張志淵역), 「學校總論」(1907.1-4, 『西友』, 朴殷植역), 「愛國論第一」(1907.1, 『西友』, 朴殷植역), 「變法通議序」(1907.5, 『大韓協會會報』, 洪弼柱역), 「世界最小民主國」(1907.7, 『幼年必讀』, 玄采역), 「政治學說」(1908.7-1909.3, 『湖南學報

2) 葉乾坤, 『梁啓超와 舊韓末 文學』, 범진출판사, 1980년, 117면 참고.

3) 葉乾坤, 앞의 책, 56면 참고.

』, 李沂역), 「支那 梁啓超 新民說」(1909.4, 『嶠南教育會雜誌』, 李鍾冕역) 등등이 있었고, 전문 또는 발췌되어 단행본으로 번역 출판된 것으로는 『淸國戊戌政變記』(1900.9, 學部, 玄采역), 『越南亡國史』(1907.10, 博文書館, 周時經역), 『羅蘭夫人傳』(1907.8, 博文書館, 譯者未詳), 『伊太利建國三傑傳』(1907.7, 廣學書鋪, 申采浩역), 『飲冰室自由書』(1908.4, 塔印社, 全恒基역), 『十五小豪傑』(1912.2, 東洋書院, 閔濬鎬역) 등등이 있었다.⁴⁾

위에서 보듯이 梁啓超 저작의 수용은 주로 1906년부터 1909년까지의 시기에 집중되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을사보호조약 이후부터 한일합방 직전까지 많은 지식인들이 국민을 각성시키고자 노력했던 시기였다. 물론 당시 梁啓超의 사상을 소개하고 그의 저작을 번역한 사람들은 대부분 開化와 自強을 주장하던 申采浩·朴殷植·張志淵·洪弼周·周時經 등등 애국계몽주의 성향의 지식인들이었다.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신채호(1880-1936)였다. 주지하듯이 신채호는 梁啓超처럼 문학가·언론인·사학자이자 현실 참여 성향의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로서 체계적인 사상체계를 가지고 근현대 한국의 학술과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큰 공헌을 했다. 사상적 배경과 성취는 물론 인생역정에 이르기까지 梁啓超와 유사한 점들이 많았고, 그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신채호 사상의 지식배경 가운데 사회진화론이나 민족주의·계몽주의 등은 상당부분 梁啓超의 저작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⁵⁾

중국보다 더 심각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직면한 조선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주로 梁啓超의 저작을 통해 서구의 학술사상을 접하는 가운데 특히 사회진화론에 경도되었다. 사회진화론은 한말부터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4) 葉乾坤(앞의 책), 李在鎰(『韓國開化期小說研究』, 一潮閣, 1972), 金鳳姬(『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1999년), 우림걸(『한국 개화기문학과 梁啓超』, 박이정, 2002) 등의 조사 참고. 原書의 형태로 들어온 것들과 요지만 발췌하거나 意譯하여 소개한 것들보다는 이와 같이 조선 언론매체에 전재되거나 번역출판된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져 소개한다.

5) 愼籟夏, 「舊韓末申采浩的思想與梁啓超의著書」, 『韓國學報』 第十期, 臺北, 1991년, 169면 및 최기영 『한국근대계몽사상연구』, 일조각, 2003년 참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조의 하나로, 특히 1900년대 초 일제에 국권을 유린 당하는 상황 속에서 지식인들은 민족의 실력양성 즉 계몽운동을 위한 논거로서 이를 적극 수용하였다. 때문에 당시 조선에서 사회진화론은 민족주의 및 계몽사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

사회진화론은 1880년 전후 일본에 먼저 전래되었다. 중국에서는 洋務運動 기간 중 영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嚴復에 의해 1896년에 소개되었다. 그는 헉슬리(T. Huxley)가 다윈의 진화론을 人治에 적용하여 논술한 『進化와 倫理(Evolution and Ethics)』를 번역하고 자신의 견해를 가미하여 『天演論』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헉슬리가 자연계에는 생존경쟁을 위한 適者生存의 원칙이 통용되지만 인간사회에는 윤리적인 진보가 있음을 강조한데 비해 嚴復은 매 章 원문 번역 뒤에 붙인 역자의 평어를 통해 민족 안에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생존경쟁은 타민족과의 경쟁을 위해 자제하고 국민들이 서로 단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의 현실에서 적자생존의 진화론적 원리를 응용하여 보수 세력에 대항하고 국민을 계몽하려는 민족주의·계몽주의적 정치 의도가 보인다. 이에 진화론의 원리와 嚴復의 의도는 梁啓超 등의 유신사조에 있어서 생존을 위한 새로운 변화 추구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배경논리로 작용하며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의 기풍을 성행시켰다.

위와 같이 중국에서 사회진화론은 유신파의 중요한 논거가 될 소지가 다분했고, 嚴復보다는 자연히 탁월한 계몽선전가인 梁啓超에 의해 성행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곧이어 그가 일본에 망명한 후 국민계몽운동에 진력하며 진보적 지식인 및 청년 계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선에서 사회진화론을 본격적으로 수용한 것도 주로 1900년대 초 『飮冰室文集』 등 梁啓超의 저작을 통해서였다. 사회진화론이 중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수용되기는 했지만 조선의 지식인들은 다분히 의식적이고 주동

6) 嚴復著·馮君豪注解, 『天演論』, 中州古籍出版社, 1998 참조.

적으로 중국의 梁啓超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의 오랜 교류전통, 同病相憐의 현실상황, 梁啓超가 많은 저작 가운데 조선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 동정하고 일제의 강권에 분노했던 점 그리고 많은 한말 개화파 지식인들이 신분이나 思考面 등에서 그와 비슷했던 점, 일어보다 한문이 접하기 쉬웠던 점 등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사회진화론은 민족주의 및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진화론에서 국가와 민족을 우선으로 하게 되면서 사회진화론은 국민국가 경쟁의 중요한 논거가 되었으며, 특히 당시 유럽 각국의 치열한 경쟁은 제국주의를 형성시켰다. 梁啓超는 이를 민족주의·민족제국주의로 파악하고 「國家思想變遷論」·「論民族競爭之大勢」·「新民說」 등 저작에서 그 개념을 설명하고 논의를 전개했다. 조선에서 사용된 민족주의 및 제국주의라는 용어와 개념 역시 주로 梁啓超로부터 수용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⁷⁾

언급했듯이 梁啓超는 정치가·사상가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학술 분야에서 도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특히 전문 사학자나 문학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획기적 성취를 이루었다. 사학 분야에서도 많은 중요한 史論들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서구 근대 사학의 이론을 소개하고 중국 新史學을 정립하는 이른바 ‘史界革命’을 주도했다. 「中國史序論」(1901)·『新史學』(1902)부터 『中國歷史研究法』(1922)·『中國歷史研究法補編』(1927)에 이르는 저작에서 역사는 “인류 진화의 현상을 서술하여 그 공리 공례를 구하는 것⁸⁾”으로,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나아가 그 진화를 인과관계로 설명함으로써 當代 일반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특히 중국 경우에는 이로써 민중계몽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를 펼쳤다.⁹⁾

이러한 梁啓超의 사학은 조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의 근대 역사학 성립기에 나온 대표적인 사론인 신채호의 『讀史新論』(1908)과 『朝鮮上古

7) 최기영, 앞의 책, 28면 참고.

8) “敘述人群進化之現象, 而求得其公理公例者也.”(『新史學』, 『新民叢報』 第1-20號, 『飲冰室文集』之九)

9) 『中國歷史研究法』, 1922.01 初版, 『專集』之七十三 참고.

史』「總論」(1924년경) 등은 중세적인 유교사관에 대해 비판하고 서구의 근대적 역사관과 이론을 수용하고자 했는데, 이 역시 梁啓超의 「中國史序論」과 『新史學』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나름대로 독자적인 민족주의 사학으로 발전시켜 간 것으로 연구되었다.¹⁰⁾

문학 분야의 경우도 역시 ‘晚淸文學革命’으로 부를 수 있는 梁啓超의 계몽주의·공리주의 문학론은 정치·사회적 수요와의 관련 속에서, 특히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조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시계혁명·소설계혁명으로 집약되는 梁啓超의 신시·신소설이론 및 작품 활동은 근대인론의 발전과 맞물려 조선의 문학계에 동국시계혁명 등과 같은 개혁 요구의 변화를 발생시켰다. 신채호·박은식 등 개화파 문인들은 망국의 위기 속에서 애국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공리주의적 문학론을 중국보다 더 필요로 했는데, 梁啓超의 주장이 현실적 요구에 크게 부합했다. 詩·文만 정통문학으로 여기던 전통에서 벗어나 특히 소설의 정치·사회에 대한 작용에 대해 인식하게 했고, 실제 역사·傳記소설이나 정치소설 등 애국계몽류의 신소설이 성행하는 국면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梁啓超는 복고적 고증학에서 벗어나 금문공양학을 위주로 하는 경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유학 기반 하에 망명기간을 중심으로 일본을 통해 서구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또 먼저 근대화한 일본 학술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한말 조선의 많은 개화파 지식인들은 다분히 의식적이고 주동적으로 중국인 梁啓超를 매개로 서구 및 일본을 학습하고, 아울러 梁啓超 사상의 영향도 받았다. 중국 근대의 민족적·국가적 위기 속에서 생성의 길을 개척해 나간 梁啓超의 대응 방식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조선의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일종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다.

10) 박찬승, 「韓末 申采浩의 歷史觀과 歷史學」, 『韓國文化』 9,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8 및 박찬승, 「1920년대 申采浩와 梁啓超의 역사연구방법론 비교」, 『韓國史學史學報』 9, 2004 참고.

4. 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

위와 같이 한말 언론 등을 통해 수용된 梁啓超의 모습은 주로 탁월한 식견과 문장으로 찬양되고, 조선에 대한 동정과 중국이 처한 상황의 유사성 즉 동병상련의 감정 등으로 인한 친근하고 우호적인 인물이었다.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동지 즉 ‘우리’였다.

이와 비교해 볼 때, 梁啓超에게 있어서 조선은 동지보다는 서구와의 대비 속에서 중국을 비취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수한 타자였다. 중화제국의 민족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장래에 중국도 조선과 같은 망국의 나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인식 하에 조선에 대한 관심은 앞서 논의한 시대인식 및 세계관 속에서 미묘하게 전개되었다. 정리부터 하자면 우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조선의 멸망에 대한 동정이다. 조선 지식인들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큰 호감을 갖게 했던 부분이다. 둘째, 중화주의 또는 제국주의적 입장에서 일종의 속국 이탈로 인한 상실감을 피력했다. 이 부분은 경쟁자인 일본의 강권에 대한 견책과 연결된다. 셋째, 이러한 인식들은 결국 중국의 계몽을 위한 교훈으로 활용되었다. 이 부분은 조선의 지배층 및 국민성에 대한 비판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물론 중국인인 梁啓超에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 조선 지식인들에게도 이성적으로 반성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은 주로 1904년부터 1911년에 이르는 일제의 조선 강점 완성 단계에 발표된 십 여종의 한국관련 저술에 나타나 있다. 그의 조선에 대한 관심이 망국 문제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朝鮮亡國史略」(1904.9, 『新民叢報』, 속편 포함), 「日本之朝鮮」(1905.1, 『新民叢報』), 「過去一年間世界大事記第六朝鮮之亡國」(1906.2, 『新民叢報』), 「嗚呼韓國嗚呼韓皇嗚呼韓民」(1907.10, 『政論』), 「日韓合併問題」(1910.7, 『國風報』), 「朝鮮滅亡之原因」(1910.9, 『國風報』), 「日本併吞朝鮮記」(1910.9, 『國風報』, 속편 포함), 「朝鮮貴族之將來」(1911.3, 國風報) 등이 있으며, 이밖에 문학작품

형태로 발표한 「秋風斷藤曲」(1909), 「朝鮮哀詞」(1910.9, 『國風報』) 및 「麗韓十家文抄序」(1915) 등에서도 조선에 대한 동정과 관심을 적극 표출했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梁啓超를 찬양하고 그 영향을 적극 수용한 데는 무엇보다 그가 조선 망국에 대해 동정을 나타낸 데 있다. 梁啓超는 일제의 강점 시도가 본격화되는 1904년 발표한 「朝鮮亡國史略」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일전쟁 전의 조선과 중일전쟁 후의 조선을 비교해볼 때, 더욱이 중일전쟁 후의 조선과 러일전쟁 후의 조선을 비교해볼 때, 나는 눈물이 눈썹에 넘쳐흐름을 금하지 못하겠다. 이제 조선은 끝났다. 지금부터 세상에 조선의 역사가 다시 있을 수 없고 오직 일본 번속 일부분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기록하여 말하노니, 상례에 지극한 애도를 표한다. 군자는 시초를 생각하는 자이다. 삼천년의 고국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멸망하는 데 그와 친숙의 관계를 가진 이로써 어찌 그 종말을 장식하게 된 사실에 대해 기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 이로써 비애를 생각하니 그 비애를 가히 알겠도다.¹¹⁾

梁啓超는 언문매체¹²⁾를 통해 전통적인 古文에 비해 平易한 ‘新文體’를 정립하고, 이로써 계몽·선전성이 강한 신문체 산문을 성행시키며 이른바 ‘文界革命’을 벌였다. 이 신문체 문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情感的의 적극적 표현’이었다. 조선이 멸망되어 감을 보며 느끼는 감정을 눈물을 금할 수 없을 만큼의 비애로 표현함으로써 딱딱한 史傳文이나 政論文에 맞지

- 11) “吾以中日戰爭前之朝鮮與中日戰爭後之朝鮮比較，吾更以中日戰爭後之朝鮮與日俄戰爭後之朝鮮比較，以不禁淚涔涔其盈睫也。今者朝鮮已矣。自今以往，世界上不復有朝鮮之歷史。惟有日本藩屬一部分之歷史。記曰，喪禮哀戚之至也。君子念始之者也。今以三千年之古國，一旦溘然長往，與彼有親屬之關係者，於其飾終之故實，可以無記乎。嗚呼！以此思哀，哀可知耳。”(『朝鮮亡國史略』, 『新民叢報』第53-54號, 1904.09.24-10.09, 『飲冰室全集』之十七)
- 12) 梁啓超는 1895년 『中外公報』를 필두로, 『時務報』(1896-1898)·『清議報』(1898-1901)·『新民叢報』(1902-1907)·『新小說』(1902-1905)·『政論』(1907-1908)·『國風報』(1910-1911)·『庸言』(1912-1914)·『大中華』(1915-1916) 등 근대 중국의 중요한 신문·잡지 9종을 주관했으며, 대부분 이 매체를 통해 자신의 문장을 발표했다.

않는 표현으로 오히려 설득력을 강하게 했다.¹³⁾ 이러한 표현이 조선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아! 梁啓超씨는 비록 외국인이라도 조선의 망국에 대하여 이렇게 애통해 하였거늘, 우리 동포가 이 역사를 보고 기가 막히지 않을 자 누가 있으리오.”¹⁴⁾라고 하는 등 그를 우호적 외국인사로 평가하게 했다.

특히 조선이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한 1910년 가을에는 『朝鮮哀詞』 5律 24首를 지어 여러 수에서 조선 멸망에 대한 애통함을 노래했다. 첫 수부터 시작과 끝을 “시운이 다하여 변하니, 사람도 하늘도 한없이 슬프구나. … … 창망히 큰 재앙 바라보노라니, 먼 외국서 부질없이 눈물만 떨어뜨린다.”¹⁵⁾라고 했다. 사실 梁啓超는 시에 대해 논의하기를 좋아하고 詩歌 개혁 운동인 詩界革命을 주도했지만 시를 잘 짓는 편이 아니었다.¹⁶⁾ 그럼에도 24수에 달하는 정련된 시로써 애통함과 분노를 토로하여, 스승인 康有爲로부터 위로는 詩經의 小雅를 잇고 나아가 杜甫 명작들의 진수를 모았다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¹⁷⁾

제 12수에서도 조선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쟁탈전을 벌이는데, 다른 열강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수방관하는 정세를 안타까워하며 “대반 받들어 의정서 체결하니, 좋아야할 회합이 너무도 쓰리고 괴롭구나.”¹⁸⁾라고

13) 梁啓超는 政論文 등 산문은 물론 모든 문학 장르의 기반인 文體의 변혁에 힘썼다. 언론인이기도 함에 따라 신문·잡지와와의 관련 속에서 이전의 고문을 개량하여 平易하고 계몽·선진에 유리한 문체를 성형시켰다. 이를 新文體 또는 新民體(新民叢報體)라고 부른다. 그 특징은 言文一致로의 접근, 俗語·韻語 및 외국어법의 활용, 體裁·題材상의 구속 타파, 情感的적극적 표출 등으로 요약된다. (줄고, 「梁啓超의 文體改革과 그 散文의 특징」, 『中國語文學論集』 제17호, 中國語文學硏究會, 2001 참고)

14) 中叟, 「讀梁啓超所著朝鮮亡國史略」, 『太極學報』 24, 1908.7.28.

15) “時運有代謝, 人天無限悲. … … 蒼茫看浩劫, 絕域淚空垂.” (『朝鮮哀詞』, 『國風報』 第21期, 1910.09.04, 『飲冰室文集』之四十五下)

16) 梁啓超는 시인이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시계혁명을 이끈 연재 시화 『飲冰室詩話』의 제 77則에서 “내가 시를 잘 짓지는 못하지만 시를 논하기는 좋아한다. (余雖不能詩, 然嘗好論詩.)”라고 한 바 있다. (舒蕪校點本, 『新民叢報』 第4-95號, 1902.02.15 -1907.10.01,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82)

17) 汪松濤, 『梁啓超詩詞全注』,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47면 참고.

18) “捧盤載書定, 良會最辛酸.” (『朝鮮哀詞』, 『國風報』 第21期, 1910.09.04, 『飲冰室文集』之四十五下)

조선의 처지에 대한 동정을 나타냈다. 제 14수에서도 조선의 주권 상실이 매우 급속히 진행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 많은 괴로움 무엇으로 다 말하리오. 주권 상실이 너무나 총망하구나.”¹⁹⁾라고 했다.

이밖에 다른 수에서도 조선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에 정통했음을 드러내며 곳곳에서 동정심을 토로했다. 梁啓超는 조선 내부의 세력 판도 변화와 분쟁은 물론 외교적 상황에 이르기까지 세밀히 주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제 15·16수에서 헤이그 밀사 파견 사건의 전말을 시로써 매우 상세히 읊는 가운데 제 15수에서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었어라. 지난 일은 오로지 탄식뿐이로다.”²⁰⁾라고 비통해 했다.

관련하여 梁啓超는 제 18수에서 安重根 義士와 國恥에 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한 충청도 錦山 군수 洪範植을 氣節이 쇠하지 않은 조선의 두 男兒로 찬양하며 그 순국을 애통해 하기도 했다.²¹⁾ 앞서 열거한 「秋風斷藤曲」 역시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는 내용의 長詩로 伊藤博文을 사살하는 장면을 비장하게 묘사하며 씻을 수 없는 조선의 국치를 안타까워했다.²²⁾

梁啓超가 이러한 시들을 지었던 것은 문학적으로는 그의 詩界革命論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간략히 말하자면, 그의 시론의 요체는 ‘新意境·新語句·舊風格’을 주장한 것인데, 그중 신의경은 새로운 시대의 시가 담아내야 할 정신과 내용으로 서구 선진문물의 수용을 비롯하여 상무정신·애국주의의 고취, 국내외 정세의 반영 등등을 말하는 것이다.²³⁾ 이러한 시는 자신의 시계혁명론을 적극 실천한 셈이다.

19) “多艱何足道，東溟太匆匆。”(같은 책)

20) “噬臍更安及，前事剩堪嗟。”(같은 책)

21) “三韓衆十兆，吾見兩男兒。殉衛肝應納，椎秦氣不衰。”(같은 책)

22) “男兒死耳安足道，國恥未雪名何成。”(「秋風斷藤曲」, 1909, 以下未詳, 『飲冰室文集』之四十五下)

23) 참고로 新語句는 위 新意境에 부합하는 새로운 詩語 및 口語·俗語의 운용, 民歌의 요소의 수용, 長篇詩의 채택, 시와 음악의 결합 등 시의 언어와 형식면에서의 새로운 시도를 말하고, 舊風格은 중국 시가 수 천 년 동안 내재시켜온 고유의 풍격 즉 중국 시가 중국 시답기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전통시가의 미학적 원천을 의미했다.(참고, 『梁啓超의 文學革命論 研究』,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6 참고)

한편 조선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梁啓超의 사학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른바 亡國史學²⁴⁾의 대표 저작인 「越南亡國史」(1905.10)에서는 처절한 弱肉強食의 국제관계 속에서 문명국을 자처하면서도 야만적 식민통치를 자행하는 프랑스에 대해 분노하고, 참혹한 악행을 당하는 약자 월남에 대해 發端 부분에서 “나는 눈물이 다 하고 피가 말라 거의 한 자도 쓰지 못하겠다.”라며 깊이 동정했다.²⁵⁾ 이 글은 곧바로 玄采·周時經·李相益에 의해 속속 번역·소개되어 조선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梁啓超의 이러한 동정과 관심은 제국주의에 침략당하는 월남·조선뿐만 아니라 인도·세르비아 등 세계의 여러 다른 국가와 민족의 불행에 대해서도 표출되었다. 비슷한 처지로 내몰리는 중국 지식인의 대표로서, 시대상황과 세계정세에 정통한 입장에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자세였다. 다만 조선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특히 깊었다. 조선과 중국이 ‘親屬의 관계’에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위의 시편들에 보이는 동정이 단순히 이웃의 불행에 대한 비통함이라기보다는 속국 즉 자신의 일부를 잃는 데 대한 애통함으로 여겨진다. 『朝鮮亡國史略』 서두에서도 보듯이 조선 망국에 대한 애통함은 약육강식의 엄혹한 국제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약자에 대한 동정에만 그치지 않고 중국의 속국 이탈로 인한 상실감과 깊이 관련되었다. 은연중 중화주의가 내재된 인식이었으며, 정치가이자 사학자로서 중화제국의 지배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해타산이 표출된 결과였다.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부득이 서구 민족국가들 중심의 세계질서 속으로 편입되면서도 조선을 속국으로 재확인하려고 했다. 기본적으로

24) 근래 錢東炫은 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망국사학의 전개과정과 결부시켜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清末 梁啓超의 大韓帝國期 韓國 認識』, 『中國史研究』 제34집, 2005)

25) “吾淚盡血枯，幾不能道一字。” (『越南亡國史』, 1904.10, 『飲冰室專集』之十九) 아울러 梁啓超는 「記越南亡國人之言」이라는 글 결론 부분에서 “설마 지난 일 년 동안 일본이 조선을 대하는 사실을 보지 못했는가?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제 2의 월남 현상이 보인다. (夫寧不見一年來日本之所以待朝鮮耶。今戰事且未集，而第二越南之現象，已將見矣.)”라며 조선에 대한 안타까움과 주의환기를 표현한 바 있다. (『自由書』七, 『新民叢報』第67號, 1905.04.19, 『飲冰室專集』之二)

자신들을 압박하는 제국주의의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 외교관 黃遵憲이 1880년 발표한 『朝鮮策略』이 이를 대변한다. 黃遵憲은 梁啓超와 같은 유신파 선배 시인이기도 하여, 시계혁명의 모범으로 내세우기도 했고 문학적·정치적으로 긴밀히 교류하며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²⁶⁾ 梁啓超도 속국을 상실해가는 중국의 외교 전략 부재에 대해 비난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중화주의·민족제국주의의 입장에서 조선의 상황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여 약 10년 동안 연속적으로 조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²⁷⁾ 그렇지만 梁啓超는 조선이 오래 전부터 중국에 복속되어 왔음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이긴 하지만 과거 조선이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으로 나뉘어 있다가 통일되어 고려가 되었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²⁸⁾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사를 때어놓으려는 식의 억지는 없었다.

일본이 조선을 강점해가는 1900년대 10년 기간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1905년 乙巳保護條約까지에 대한 저작으로는 『朝鮮亡國史略』이 대표적이다. 이 글에서 梁啓超는 조선 망국의 역사를 제 1기 청일전쟁까지 ‘중국과 일본의 조선’ 시대, 제 2기 러일전쟁까지 ‘일본과 러시아의 조선’ 시대, 이후 제 3기 ‘일본의 조선’ 시대로 구분했다. 그중 제 1기에 대한 논의에서 梁啓超는 청일전쟁의 요체는 조선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입장 대립이었으며, 중국은 조선을 번속으로 유지하고자 했으나 전쟁의 패배로 조선을 보호하는 자격을 상실하고 남에게 의탁하게 되었다고 인식했다. 제 2·3기에 있어서도 梁啓超는 중국이 조선에서 갖는 지위가 러시아를 거쳐 일본의 수중으로 넘어간다는 관점에서 그 과정을 세밀히 고찰했다. 주로 제국주의 열강

26) 梁啓超는 정치·외교사상 및 문학면에서 黃遵憲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飲冰室詩話』 총 204則 중 37個則에서 黃遵憲의 시에 대해 찬양했으며, 시계혁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舒蕪校點, 『飲冰室詩話』, 『新民叢報』 第4-95號, 1902.02.15-1907.10.01,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82 및 黃遵憲著 錢仲聯注, 『人境廬詩草箋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참고)

27) 錢東炫, 앞의 글, 142쪽 참고.

28) “朝鮮裂爲三國, 日高句麗, 日百濟, 日新羅. 蓋高句麗與我交涉最繁, 新羅則昵近日本, 百濟則常修玉帛二境者也. 自唐以遠, 三國統一, 名曰高麗.” (『日本併吞朝鮮記』, 『國風報』 第 22-23期, 1910.09.14-09.24, 『飲冰室專集』之二十一)

의 각축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을 바라보았다.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에 발표한 「日本併呑朝鮮記」 역시 나름대로 발전된 시기 구분을 시도하며²⁹⁾ 조선의 내부 상황과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전에 대해 제국주의적 입장에서 객관적 분석을 했다.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중화주의 기반 위에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서구의 제국주의를 순순히 수용하고, 나아가 조선이라는 타자를 거울삼으려는 의식 하에 조선을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선이 청일전쟁 이후 중국의 속국으로부터 이탈하여 황제 칭호를 함부로 도용했다는 식의 냉소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³⁰⁾ 아울러 중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비판과 미래에 대한 염려는 자연히 조선을 두고 경쟁을 벌인 경쟁자이자 장래의 중국 침략자인 일본에 대한 견책으로 연결되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제국주의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제국주의 국가를 비판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³¹⁾ 아무튼 조선을 속국으로 간주한 모습에서 서구의 근대적 민족국가 개념에서 벗어나 민족제국주의의 형상을 갈망한 이기적이고 모순된 입장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선망국의 근본적 원인이 조선·조선인에 있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중국의 계몽을 위한 논거가 되었으며 그 논조는 동정적인 데서 나아가 사투

29) 조선의 입장에서 중국에 종속된 시기, 독립을 주장한 시기, 일본에 종속된 시기, 일본에 합병된 시기로, 이를 다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과 중국의 조선정탈시기, 일본과 러시아의 조선정탈시기,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한 시기,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시기 등 네 시기로 나누었다.

30) “朝鮮王亦妄竊帝號，聊以自娛矣。”(『國風報』第22-23期, 1910.09.14-09.24, 『飲冰室專集』之二十一)

31) 예를 들어 을사보호조약이 있던 1905년 들어서며 발표한 「日本之朝鮮」에서는 시위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헌병 한 명이 부상을 당한 것을 빌미로 일본이 조선의 경찰권을 강압적으로 이양 받는 상황에 대해 “아! 조선이 조선인의 조선이 될 것인가? … … 아! 내 이를 보니 強權의 진상을 알겠다. 이러한 경천동지할 일을 한 번 하고 또 반복하면서도 아무 일 없는 듯 평안하구나. 내가 이를 보니 더욱 강권의 진상을 알겠노라. (嗚呼! 朝鮮尙得爲朝鮮人之朝鮮耶! … … 嗚呼! 吾觀此而有以識強權之眞相矣。抑以此轟川震地之舉動，而一來復了之，安然若行無事焉。嗚呼! 吾觀此而益有以識強權之眞相矣.)”라며 조선의 처지를 개탄하고 일본의 강권을 견책한 바 있다.(『新民叢報』, 1905.01.06, 『飲冰室專集』之十四)

비판적이고 비판적·냉소적이었다. 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은 이른바 亡國史學에 집중되었고,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을 自強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몽적 의도에서 출발한 新史學의 실험이었으므로,³²⁾ 미래의 중국을 위해 조선의 문제를 냉정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梁啓超는 조선은 총체적으로 부실한 가운데 특히 정치의 부재를 큰 문제로 제기했다. 저작들에서 주권자인 조선 황제의 실정을 비판하고, 귀족·관리를 비롯한 양반 통치계층에 국가의식이 없어 정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근본적으로 국민성이 열악하다는 등의 구체적인 인식으로 발전했다.

예를 들어 「朝鮮滅亡之原因」(1910.9)에서는 망국의 최대 원인을 宮廷이라고 단언했다.³³⁾ 梁啓超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통한 근대화의 추구를 위해 立憲君主制 뿐만 아니라 開明專制도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專制政治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무능한 국왕과 조정의 失政이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여 망국으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大院君의 섭정과 명성황후의 정치 참여를 비롯하여 무리한 경복궁 중건, 천주교 박해로 인한 국제적 갈등 등으로 인해 국정의 난맥상이 빚어졌고 조정이 黨爭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보았다.³⁴⁾

이러한 논의에서 梁啓超는 조선 황제 개인의 자질에 대한 비판에 큰 비중을 두었다. 예를 들어 1907년 「嗚呼韓國嗚呼韓皇嗚呼韓民」에서 定見이 없다³⁵⁾고 인식한 정도에서 나아가 가장 비판적인 글인 1910년 한일합방 이후의 「朝鮮滅亡之原因」에서는 “두려움이 많고 나약하여 스스로 떨쳐 일어나지 못하고, 의심이 많고 결단성이 부족하여 참언을 듣기 좋아하고 사리 판단에 어두우며, 총애하는 궁녀가 많고 도적놈들이나 가까이 하며, 잔꾀를 부리고 계획은 늘 치졸하며, 타인에게 의지하여 자립하지 못하며, 허식을 좋아하고 내실에 힘쓰지 않는다.”³⁶⁾라고 소설적 표현에 가까운 비판적 인

32) 錢東炫, 앞의 글, 143쪽 참고.

33) “朝鮮滅亡之最大原因, 實惟宮廷.” (『國風報』第22期, 1910.09.14, 『飲冰室專集』之二十)

34) 『國風報』第22期, 1910.09.14, 『飲冰室專集』之二十 참고.

35) 『政論』第1號, 1907.10.07, 『飲冰室全集』第40冊 참고.

식을 피력했다. 망국사학의 계몽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문학적 과장도 다소 더해진 것으로 여겨지며,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소신인 입헌군주제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의 專制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이해된다.

황제에 대한 비판에서는 대개 황실 갈등과 국정 혼란의 핵심으로 대원군에 대한 인식도 함께 기술했다. 「朝鮮滅亡之原因」에서는 대원군과 고종의 배경 및 섭정에 관한 상황을 설명하고, 조선의 국정 혼란은 주권이 한 곳에서 나오지 않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대원군 개인에 대해 “천성이 각박한 사람이다. 그 음험하고 사나운 성질은 온 한국의 조정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 교만하고 흐리멍덩하면서도 조급하고 시샘이 많으니 주권자의 그릇이 못된다.”³⁷⁾라고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日本併呑朝鮮記」에서는 대원군의 인물됨에 대해 “술수와 모략 꾸미길 좋아하나 대체를 알지 못하며, 일 만들기를 좋아하나 일정한 계획이 없으며, 성질이 잔혹하고 교만하나 속마음은 유약하고 시기가 많다.”³⁸⁾라고 가차 없이 비판하며, 이는 “실로 조선 민족성질의 대표이며 멸망의 장본인”³⁹⁾이라고 규정했다. 자의든 타의든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옛 번속의 지도자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專制의 정점에서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 무능과 열악한 품성을 종합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梁啓超는 조선의 지배계층인 귀족·관리 등 양반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전반적으로 정치·사회 지도층이 오직 개인만 알 뿐 국가의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朝鮮滅亡之原因」에서는 조선에서 오직 양반만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인격을 가지고 정치·경제·사회

36) “韓皇之爲人也，愷儒而不自振，多疑而寡斷，好聽讒言而暗於事理，多內嬖而昵宵小，喜行小慧而計常拙，依賴他人而不自立，好爲虛飾而不務實。”(『國風報』第22期，1910.09.14, 『飲冰室專集』之二十)

37) “大院君者，固天性刻薄人也。其陰鷲之才，舉韓廷無出其右。惟驕汰而卞急多猜忌，無君人之器。”(같은 책)

38) “好弄術智而不知大體，喜生事而無一定之計劃，性殘酷驕慢而內荏多猜。”(『國風報』第22-23期，1910.09.14 -09.24, 『飲冰室專集』之二十一)

39) “實朝鮮民族性質之代表，而亂亡之張本人也。”(같은 책)

를 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직만을 직업으로 삼고 모두 존귀하고 우월함만 누리며 교만하여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한다고 비난했다. 관직을 개설하는 것은 정치를 행하기 위함인데 조선에서는 그것이 직업 없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였으며, 봉당이냐 만들어 당쟁을 벌이고 이를 통해 사욕을 도모했으므로 이는 다른 나라들의 정치 단체들이 수행하는 정치가 아니었다고 조소했다.⁴⁰⁾ 조선의 지배계층이 자기 개인만 알 뿐 국가의식이 없어 진정한 정치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한일합방 이후 표현이 더 과격해지는데, 물론 이것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의 현실에 비례하여 자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강조하려고 한 것과 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친일파 등 지배층이) 국가를 팔아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고 본 상황⁴¹⁾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일합방 발표를 앞두고도 황제 즉위 4주년 기념연회를 자연스럽게 치른 조선 君臣들의 어이없는 행태는 당시 개인주의와 사대주의가 팽배했던 데 비해 국가의식과 주권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梁啓超는 지도층의 이러한 성향이 결국 친일파를 만들어 망국의 직접적인 주역이 되게 했다고 보았다.⁴²⁾

梁啓超는 구체적으로 一進會의 성립이 조선을 망하게 한 일대 사건이었으며, 일본은 伊藤博文 이상으로 宋秉畷·李容九 등에게 포상해야 한다고 조롱했다. 「朝鮮哀詞」에서도 “대국은 원래 값없는 일임에도, 이름을 적어 책공까지 하는구나. 잃어진 등지에 어찌 알이 있겠는가? 아! 이 가련한 벌레들아.”⁴³⁾라고 시로써 친일파를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시 뒤에 덧붙

40) 『國風報』第22期, 1910.09.14, 『飲冰室專集』之二十 참고.

41) 「朝鮮貴族之將來」, 『國風報』第5期, 1911.03.21, 『飲冰室文集』之二十五上 참고.

42) 「日本併吞朝鮮記」, 『國風報』第22-23期, 1910.09.14-09.24, 『飲冰室專集』之二十一 참고. 같은 글에서 梁啓超는 조선이 멸망함에 일부 군현의 장관이나 해외 유학생 중에 순국한 이가 있었고 지방 농민이나 교포 상공인 중에 광복을 위해 헌신한 이들이 있었으나, 조정의 상류 지배계층은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43) “賣國原無價，書名更策功。覆巢安得卵，嗟爾可憐蟲。”(『朝鮮哀詞』, 第19首, 『國風報』第21期, 1910.09.04, 『飲冰室文集』之四十五下)

인 설명에서 일진회는 정당의 이름을 빌어 관직을 탐내는 무리로 회원이 10만 여이며 주요 인물로 송병준과 이용구가 있는데, 현 내각 李完用 일파와 갈등 관계 속에서 경쟁적으로 일본에 아첨했다고 분석했다.⁴⁴⁾

다만 지도층에 대한 인식에서 예외적으로 긍정적인 대목도 있었는데 바로 앞서 「朝鮮哀詞」에서 시로써 읊은 안중근과 흥범식에 대한 찬양이었다. 특히 조선사람 가운데 안중근 같은 이가 한둘만 더 있어도 일률적으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고,⁴⁵⁾ 일본인까지 경의를 표할 정도의 인물이었다고 평가했다.⁴⁶⁾ 결과적으로 국가를 멸망에 이르게 한 조선인들에 대해 가차 없이 비판했지만, 사실 비슷하게 침략 당하는 입장에서 중국 땅에 등장한 일제의 수뇌를 중국인이 아닌 조선인이 응징한 사건은 중국인들에게 부끄러움과 함께 크게 귀감이 되는 일이었다. 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 중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인 대목이다.

梁啓超 사상 중 가장 핵심인 新民思想 즉 근대화를 위해 국민성을 개선하고자 했던 계몽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조선 망국의 최대 근원은 열악한 국민성⁴⁷⁾에 있었다. 그가 말하는 국민성이란 국민이 국가와 국민 및 조정에 대해 갖는 인식을 가리키는데, 조선의 국민성에 대해 중국 국민성에 대한 분석처럼 자세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

44) 『朝鮮哀詞』, 第19首 說明, 『國風報』 第21期, 1910.09.04, 『飲冰室文集』之四十五下 참고.

45) 『朝鮮滅亡之原因』, 『國風報』 第22期, 1910.09.14, 『飲冰室專集』之二十 참고.

46) 『日本併吞朝鮮記』, 『國風報』 第22-23期, 1910.09.14-09.24, 『飲冰室專集』之二十一 참고.

47) 梁啓超는 국가의 '積弱' 즉 약화 또는 그 반대인 富強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 국민이 국가와 국민 및 조정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보고, 고쳐야 할 잘못된 속성으로 노예성, 우매함, 극단적 이기주의, 거짓 선호, 나약함, 不動 등을 들었다. (『中國積弱溯源論』, 『清議報』 第84冊, 1901.4.29-07.06, 『飲冰室文集』之五 참고) 한편 梁啓超는 1915년 金澤榮의 『麗韓十家文抄』에 붙여준 序文에서 “무릇 국가의 존망은 사직이나 종묘의 흥하고 폐함을 이르는 것이 아니며, 정삭이나 복색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른바 국민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민성이 상실되면 비록 종묘사직과 정삭복색이 버젓해도 군자는 그것을 국가가 있다고 하지 않는다. (夫國之存亡, 非謂夫社稷宗廟之興廢也, 非謂夫正朔服色之存替也, 蓋有所謂國民性者. 國民性而喪, 雖社稷宗廟、正朔服色儼然, 君子謂之未始有國也.)”라며 이미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의 문인을 격려하고 국민성 보존의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 때의 국민성은 주로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문화전통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麗韓十家文草序』, 1915.02.13, 『飲冰室文集』之三十二 참고)

다. 을사보호조약까지의 글들에서 정치가 권세와 이익의 추구에 머물고 자주독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정도에 머물던 비판적 인식이 망국의 확정에 따라 국민성에 대한 심각한 비판으로 발전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인은 자립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하는 천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하며 이 점을 간파하고 침략의도를 굳혔다고 보기도 했다. 아울러 조선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그 오랜 천성인 대외의존 즉 事大主義의 대상이 러시아를 거쳐 일본으로 바뀌었다는 인식 하에 그에 대한 중화주의 또는 제국주의적 서운함과 조소도 감추지 않았다.⁴⁸⁾

또 이렇게 주권의식이 박약한 것은 결국 개인주의 성향의 국민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세계에서 개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들 중에서도 조선이 그 첫째라는 편파적인 평가로 비약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조선인들은 이야기하기를 매우 좋아하지만 진심에서 우리나라 오는 것이 없고, 화를 잘 내고 일을 만들기를 좋아하며 모욕을 당하면 분노하지만 금방 식어버린다고도 했다. 또 조선인들은 장래에 대한 관념이 매우 박약하여, 백성들은 일단 배부르면 내일 먹고 살 일을 도모하지 않고, 벼슬하는 자들도 오늘 권세가 있으면 내일 나라가 망해도 아무 대책 없이 국가의 운명을 생각지 않는다고 하는 등등 부정적 인식들로 일관했다.⁴⁹⁾ 다분히 결과론적이고 상투적이며 결국 중국 계몽을 위한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의미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도 황제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냉혹한 국제질서에 대한 안목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점, 진화론으로 무장한 국민국가들의 세계사 조류 속에 친일파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주인의식 없이 개인주의적 안일에 치중했던 상황에 대한 비판은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48) 「日本併呑朝鮮記」, 『國風報』 第22-23期, 1910.09.14-09.24, 『飲冰室專集』之二十一 참고.

49) 「朝鮮滅亡之原因」, 『國風報』 第22期, 1910.09.14, 『飲冰室專集』之二十 참고.

5. 결론

중국 근대시기 維新派 啓蒙主義 지식인의 대표인 梁啓超는 중국의 정치·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의 개혁운동에 중대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소개된 이후 개화기 애국계몽주의 지식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梁啓超 또한 조선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졌고 또 당시 조선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며 이를 통해 중국을 위한 일종의 교훈을 추구함으로써 일방의 수용에 그치지 않고 상호 작용하는 교류관계를 형성했다.

梁啓超는 학술사상적 측면에서 康有爲로부터 전수받은 經世의이고 미래 지향적인 寸文公羊學 기반 위에 사회진화론·민족주의·계몽주의를 비롯한 서구 사상을 적극 수용하여 부국강병을 위한 개혁운동의 중요한 근원으로 삼았다. 비록 그가 추진한 개혁이 壬戌政變에 의해 정치적으로 좌절되었지만, 이후 오히려 실패를 교훈삼아 폭넓은 언론·교육활동 등 계몽운동을 전개하여 當代에 이미 커다란 호응을 얻은 것은 물론이고 현대에까지 계속 깊은 영향을 미쳤다.

梁啓超는 1897년 초 처음으로 조선 언론에 소개되었고 이후 많은 저작들이 속속 전래되며 여러 측면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제국주의 열강의 유린에 직면한 동병상련의 현실 가운데서, 그가 서구문명의 수용을 제창하고 애국계몽사상을 고취한 많은 문장들에 대해 조선 지식인들도 크게 공감했다. 당시 梁啓超를 소개하고 찬양한 기사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며, 많은 저작들이 언론매체에 실리거나 단행본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특히 을사보호조약 이후부터 한일합방 직전까지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申采浩·朴殷植·張志淵·洪弼周·周時經 등등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이들을 포함한 많은 애국계몽주의 성향의 지식인들은 그로부터 사회진화론이나 민족주의·계몽주의 사상 등을 수용했다.

또한 梁啓超는 서구 근대 史學의 이론을 소개하고 중국의 新史學을 정립하

는 이른바 ‘史界革命’을 주도했는데 이 분야의 성과 역시 신채호 등이 주축이었던 조선의 근대적 역사학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晚淸文學革命’으로 부를 수 있는 梁啓超의 계몽주의·공리주의 문학론 역시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동국시계혁명이나 애국계몽소설 제창과 같은 개혁 요구의 변화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조선의 많은 개화파 지식인들은 주동적으로 중국인 梁啓超를 매개로 서구 및 일본을 학습하고, 아울러 梁啓超 자체의 영향도 받았다. 중국 근대의 민족적·국가적 위기 속에서 생성의 길을 개척해 나간 梁啓超의 저항과 수용의 방식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조선의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일종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조선 지식인들에게 비친 梁啓超의 모습은 주로 탁월한 식견과 문장으로 찬양되고, 조선에 대한 동정과 동병상련의 감정 등으로 인한 친근하고 우호적인 인물이었다. 당시 조선은 아직 민족국가주의 의식이 강렬한 시기가 아니었으므로 일부 제국주의적이고 지나치게 비판적인 대목도 일종의 동지의식 하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梁啓超에게 있어서 조선은 서구와의 대비 속에서 중국을 비취볼 수 있는 특별한 타자였다. 중화제국의 민족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장래에 중국도 조선과 같은 망국의 나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인식 하에 조선에 대한 동정·관심·우려와 서운함·조소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은 주로 1904년부터 1911년에 이르는 일제의 조선 강점 완성 단계에 발표된 십 여종의 한국관련 논저와 일부 시편들에 나타나 있다. 특히 亡國史學이라고 부를 수 있는 「朝鮮亡國史略」(1904.9)·「朝鮮滅亡之原因」(1910.9)·「日本併吞朝鮮記」(1910.9) 등을 통해 망국 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기술한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을 自強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몽적 의도에서 출발한 新史學의 입장에서 중국을 위해 조선의 문제를 냉정히 분석하고 또 과장되게 묘사하기도 했다. 「秋風斷藤曲」(1909)·「朝鮮哀詞」(1910.9)와 같은 조선 관련 詩作들도 자신의 詩界革命에 부합되게 공리주의·계몽주의적 입장에서 지어진 작품들이었다.

이러한 저작들에 보이는 조선에 대한 인식은 크게 조선의 멸망에 대한

동정, 중화사상 및 제국주의적 입장에서 속국 이탈로 인한 상실감과 서운함, 경쟁자인 일본의 강권에 대한 견책, 망국의 근원으로 본 조선의 지배층 및 국민성에 대한 비판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계몽을 위한 교훈을 목적으로 삼았다.

결국 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중화주의를 견지한 채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서구의 민족제국주의를 단순히 수용하고 조선이라는 타자를 거울삼으려는 의식 하에 진행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때문에 동정에서 벗어나 비난과 비판을 넘어 조소에까지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민족존망의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시점에도 위로는 황제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개인주의적이고 대외의존적인 안일과 무지·무능에 머물며 세계사의 조류에 대응하지 못했던 상황은 여전히 패권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의 국제질서 속에서 냉철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투고일	09.04.10	심사완료일	09.05.11	게재확정일	09.05.14
-----	----------	-------	----------	-------	----------

〈참고문헌〉

- 梁啓超, 『飲冰室合集』, 北京中華書局, 1936.
- 梁啓超, 『飲冰室全集』, 上海中華書局, 1916.
- 梁啓超著, 舒蕪校點, 『飲冰室詩話』,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82.
- 李國俊, 『梁啓超著述繫年』, 復旦大學出版社, 1986.
- 汪松濤, 『梁啓超詩詞全注』,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98.
- 嚴復, 『天演論』, 中州古籍出版社, 1998.
- 黃遵憲著, 錢仲聯注, 『人境廬詩草箋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 申采浩, 『丹齋申采浩全集』, 螢雪出版社, 1977.
- 朴殷植, 『朴殷植全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75.
- 김병민, 「梁啓超와 그의 『朝鮮哀詞』 5律 24首」, 『민족문화사연구』 16, 2000.
- 김봉희, 『韓國開化期書籍文化研究』, 이화여대 출판부, 1999.
- 박찬승, 「한말 신채호의 역사관과 역사학」, 『韓國文化』 9,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8.
- 박찬승, 「1920년대 申采浩와 梁啓超의 역사연구방법론 비교」, 『韓國史學史學報』 9, 2004.
- 엽건곤, 『梁啓超와 舊韓末文學』, 범진출판사, 1980.
- 우림걸, 『한국 개화기문학과 梁啓超』, 박이정, 2002.
- 이광린, 『開化派와 開化思想研究』, 일조각, 1989.
- 이재선, 『韓國開化期小說研究』, 일조각, 1972.
- 전동현, 「清末 梁啓超의 大韓帝國期 韓國 認識」, 『中國史研究』 제34집, 2005.
- 최기영, 『한국근대계몽사상연구』, 일조각, 2003.
- 慎鏞廈, 「舊韓末申采浩의思想與梁啓超의著書」, 『韓國學報』 第十期, 1991.

〈Abstract〉

Acceptance of Liang Qi-Chao(梁啓超) in *Josun* and
Liang Qi Chao's Recognition about *Josun*

Choi, Hyeong-wook (Hanyang University)

Liang Qi-Chao not only served important role in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reformation of China, but also influenced patriotic enlightenment intellectuals in the civilized age of *Josun* after he was introduced to *Josun*. He also had considerable knowledge on *Josun* and showed interest in the state of declining *Josun*. And by knowing this and trying to pursue lessons for China, he didn't satisfy with only a one-sided acceptance but formed interacting relationship of interchange as well.

Liang Qi-Chao was first introduced to the press of *Josun* in early 1897. Then lots of his books were imported and had caused strong reflection. As they realized that they are confronting the same pain from devastation of the imperialism powers, intellectuals of *Josun* sympathized with his articles which are proposing acceptance of Western civilization and inspiring patriotic enlightenment. They intensively introduced Liang Qi-Chao from 1905, when the danger of national decay was rising, to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And they accepted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nationalism, and enlightenment from him. Furthermore, new history(新史學), which was based on the theory of modern history and set up by Liang Qi-Chao, had a big effect on the formation of modern Korean

history. The utilitarian and enlightening literary thoughts were incurring changes of reformation demands of the literary world of *Josun* focusing on poetry and novels.

The achievements of Liang Qi-Chao, who carved out the generative way within the ethnic and national crisis in modern China, served as a pattern for advanced intellectuals of *Josun* who were placed in a similar situation. Thus the features of Liang Qi-Chao showed in the eyes of *Josun* intellectuals were praised for his excellent insight and writings. He was a friendly and convivial person because of his sympathy on *Josun* and emotion of the same pain.

On the other hand, *Josun* became a special otherness to reflect China in comparison with the Western. As the crisis of China was deepened, and under the recognition that China would be placed in the destiny like *Josun* in the future, Liang Qi-Chao compositively indicated sympathy, concern, anxiety and regret on *Josun*. The recognition on *Josun* that was showed in his books released from 1904 to 1911, was expressed as the sympathy on the fall of *Josun*, as the regret and loss on bolting from the tributary in the views of the *Sinocentrism* and imperialism, as the censure on the force of Japan as a rival, and as the criticism on the character of a nation and political elites. Ultimately, it was due to give lessons for the enlightenment of China.

But, as a result, the recognition on *Josun* of Liang Qi-Chao couldn't get out of imperialistic view, because it was obediently accepted the western ethnic-imperialism which was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and was progressed under the consciousness regarding *Josun* as a otherness. Therefore it reached a scornful laugh beyond from sympathy, blame and criticism.

However still staying in the individual and external-reliant idleness, ignorance and disability, *Josun* couldn't deal with the current of the world history in the crisis of the ethnic existence. Today, as we are still in the international order of overflowing hegemonism, it is needed to dispassionately remind the situations of *Josun*.

Key Words: acceptance of Liang Qi-Chao, the recognition on *Josun*, enlightenment, nationalism, the history of nation decay